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잠긴 문 안,
두려움으로 떨던 숨결 위에
주님은 평화를 놓아두신다.

상처 난 손에서 흘러나온 빛,
그 빛이 제자들의 어둠을 열고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인다.

숨을 내쉬시는 그 순간,
달한 마음은 교회가 되고
흘어진 언어는 사랑의 노래가 된다.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의 밤에도 불꽃처럼 머무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5/01/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 0

현재 참가 인원 - 0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성가: 147	예물준비 성가: 142, 143	성체성가: 166, 496	파견성가: 144
-------	-----------	-------------------	----------------	-----------

주님 승천 대축일(5/17)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6명	62명	214명	143명	35명	510명



성 보나벤투라

신비가들의 왕자, 세라핌적 박사라 불렸던 보나벤투라



교황 레오 13세가 “신비가들의 왕자”라고까지 불렀던 성인, 보나벤투라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서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스콜라 신학자이며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다. 이브 콩가르는 성 보나벤투라에게 있어서 신학은 “은총의 산물”이며, 따라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보나벤투라는 철학과 신학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신앙 진리에 있어서 철학 자체의 한계를 분명히 밝혔다. 신앙의 빛이 없는, 즉 신학에서 분리된 철학은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밝힐 수 없다. 이성이 신앙에 의해 스스로를 넘어서지 않고 그 자체에 머문다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성은 그 자체의 힘만으로는 진리의 빛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콩가르는 여기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신학의 차이를 설명한다.

“성 토마스는 신학을 신앙의 확신에 대한 성장으로 보며, 이 확신들이 인간의 이성과 합치되어 지식의 체계로 세워진다고 본다. 신학도 다른 모든 것처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초자연적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나,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성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막역한 벗으로 지냈던 보나벤투라는 그러나 신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다. 성 토마스가 주지적이고 분석적이었다면, 성 보나벤투라는 주의적이고 신비적이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뛰어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사상적으로 그는 플라톤-아우구스티노 노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데아론 때문에 그는 플라톤을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사상 체계의 많은 부분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노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아우구스티노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누구도 아우구스티노보다 철학과 신학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고까지 말했다.

보나벤투라 성인의 영적 학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

리스도는 하느님이며 동시에 인간이고, 스승인 동시에 형제이며, 임금이자 친구이고, 영원한 말씀이자 사람이 되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자 구세주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구속에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이며 생명의 책으로서 인간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는 나무이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보물이 담긴 책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 책을 발견하여 읽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만으로는 하느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 능력을 정화해야 한다. 즉 먼저 조명을 받고 정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상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접점을 보고 그분이 구원의 중재자이심을 깨닫게 되면, 인간은 탈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총과 더불어 깨달음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강한 원의와 기도 역시 필요하다. 그러한 탈혼의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은 어떤 욕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나벤투라는 이 탈혼이 위에서 오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이때 인간 이성의 지성적 활동은 너무나 강한 신적 빛에 의해 멈추게 되고, 영혼은 빛난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인간이 이성보다는 관상을 통해 하느님을 한 차원 높게 고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피조물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 아닌, “하느님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다.

보나벤투라(Bonaventura, 1217?~1274) 성인은 이탈리아 중부 비테르보 근처의 산골짜기 마을 바노레조에서 태어나 이곳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기초 학문과 종교 교육을 받은 뒤,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이었던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그의 본래 이름은 조반니 디 피단차였으나, 1243년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여 수도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름을 바꾸게 된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어렸을 때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그는, 어머니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중재 기도를 청했고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이때 성인이 축복하기를 “O, buona ventura!”(오, 좋은 일이 울지어다!)라고 했는데, 보나벤투라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1235년부터 6년 동안 파리대학교 문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243년에 문학석사 학위를 받은 뒤 같은 해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했다. 이후 1248년까지 파리대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이후 2년 동안 성서를 가르쳤고, 1250년에는 명제집 학사 학위를 받고 당시의 신학교과서인 베드로 롬바르두스의 저서 『명제집』(Sentences)을 강의했다. 또 1253년에는 정식 교수가 되어 프란치스코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한편 파리 가톨릭대학에서 그는 역시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친분을 맺고 일생의 교분을 이어 갔다.

1257년 2월 프란치스코회의 총장으로 선출된 보나벤투라는 우선 학자로서 자기가 속한 이 신생 수도회를 공격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도회를 변호하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 또한 총장으로서 수도회 내부의 여러 유평으로부터 수도자들을 보호해야 했다. 아울러 그는 가톨릭교회 안팎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활발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했다. 1273년 그는 교황 그레고리오 10세에 의해 알바노의 교구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열린 제2차 리용 공의회를 준비하는 소명을 받고 동서방 교회의 화해를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공의회 제4회기 중인 1274년 7월 15일 리용에서 세상을 떠났다. 1482년 교황 식스토 4세는 보나벤투라를 성인으로 선포했고, 교황 식스토 5세는 1588년 그를 「교회 학자」로 선포했다. 특히 보나벤투라는 일반적으로 그의 뛰어난 덕을 기려 「세라핌적 박사」(Seraphic Doctor)로 불린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 ① 메모리얼 데이 미사
 - 일시 : 5/25(월) 오후 1:00
 - 장소 : 홀리루드 묘지 205 NE 205th St, Shoreline, WA 98155
- ② 50주년 기념과 견진성사 미사
 - 일시 : 5/31(주일) 오전 10:00
 이날 오전 8:00, 11:30, 오후 5:30 미사는 없습니다.
- ③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6/6(토) 오전 10:00
- ④ 첫 영성체 예식
 - 6/7(주일) 오전 10:00 교중 미사중에 첫 영성체 예식이 있습니다. 첫 영성체 관계로 오전 오전 11:30미사는 없습니다.
- ⑤ 6월 평일 미사 취소 안내
 - 북미, 캐나다 사제 연수로 인해 6/9(화)부터 6/12(금)까지 4일간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2 구역장 회의

- 일시 : 5/24(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5/24(주일) 오후 1:00
 - 장소 : 101호실
- 단체장: 구역장, 꾸리아, 울뜨레야, 청년회, 학부모회, 연령별 모임.
- 본당 5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하늘 뜨락제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하늘 뜨락제를 위한 단체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해당 단체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울뜨레야 월례 모임

- 일시 : 6/6(토) 오전 11:00
 - 장소 : 101호실
- 울뜨레야 모임에 본당 꾸르실리스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 예비자 교리반 안내

- 한국어 교리반
- 일시 : 6월 5일(금)부터 매주 오후 7시
 - 장소 : 101호실

- 영어 교리반
- 일시 : 6월 7일(주일)부터 매주 오후 4시
 - 장소 : 101호실

6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 7/1/2025 - 8/31/2026
대상 : 전신자

입당송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1 코린 12,3c-7.12-13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우 리 들 의 정 청

[교무금] 한씨니 이향숙 박원규 이계숙 최강복 이지연 박균조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전운원 이승우 이지연 이명희 안창남 이광재 이채경 이천우 송재민 전다윗 이사라 최강복 노경희 이복자 이태경 김경희 박명완 이정애 최성실 조항영 전명순 박의전 안신자 박수익 임대근 양대석 신경협 서용원 이종성 신길하 호명규 서진원 문범기 강성수 홍소영 박 열 박애령 장병순 이상원 백 경 김종진 이상철
[교무금 Push Pay] 박소영 유승일 이로서 이윤기 이진열 김명준 맹성호 송승혜 김종대 이경아 백승진 이재용 이서영 안마슈 최중국 안정희
[감사헌금] 정순도 이명희 탁희선 임동연 익명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감사 헌금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5/17/26 집계) : \$4,000.00
\$6,469.00	\$16,385.00	\$1,481.00	\$270.00	곽종세, 한춘미, 정해영, 김금숙, 김건식/윤현숙(한국)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원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5/28/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6/20/2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삶과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인격과 세상 안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해 온 전통적 사고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육은 어떠한 인간을 길러 내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AI 시대일수록 가톨릭 교육은 기술보다 인간을, 정보보다 지혜를, 경쟁보다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사목 헌장, 4항)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제21회 교육 주간을 맞아 AI 시대의 가톨릭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성찰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개인이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상과 만나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사고와 성격과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갑니다. 학교는 자신과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배우는 첫 번째 사회적 환경입니다(「대화의 문화를 위한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The Identity of the Catholic School for a Culture of Dialogue] 참조). 따라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또래 사이의 만남과 친교로써 인간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교육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은 자유와 창의성, 연대와 정의와 같은 인간적 가치를 배우며 성숙해 갑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도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돕고, 학습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과연 학생들에게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는지 묻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AI 기술은 학생들을 고립시키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만남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과 성찰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중심의 구조는 소비주의와, 고립된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인간 존엄

제21회 교육 주간 담화 (2026/5/25-31)

인공 지능(AI) 시대, 가톨릭 교육의 방향



의 가치를 흐리게 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교회도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2025년 교육 분야의 회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Gravissimum Educationis) 반포 60주년을 기념하여 교황 교서 「희망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Drawing New Maps of Hope)를 발표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인공 지능과 디지털 환경은 존엄성과 정의와 노동의 보호를 지향해야 하며 공공 윤리와 참여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걸맞은 신학적 철학적 성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AI 시대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인간관과 교육 철학 위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AI 시대 가톨릭 교육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느님과 대화하는 내적 삶의 형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내적으로 충만하고 깊이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침묵과 성찰의 시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경험,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가

톨릭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내적 성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는 하느님과 인간, 교사와 학생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며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적인 디지털 문화의 형성입니다. 인공 지능과 인간 지능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인공 지능은 인간 지능의 인공적 형태가 아니라 인간 지능의 산물로 여겨져야”(「옛것과 새것」 [Antiqua et Nova], 35항)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과 인공 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이 생겨나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효율성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며, 기술적·정서적·사회적·영적·생태적 지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육은 공동선과 관계성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평화 교육입니다. 오늘날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육은 비폭력적 언어와 몸짓, 화해와 연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마태 5,9 참조) 예수님 말씀은 교육의 내용이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육은 존중과 화해로써 공동선을 이루는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배려하며, 포용과 돌봄과 봉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교 교육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하나의 합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국가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 공동체로서 공동의 사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관계, 그리고 희망을 중심에 두는 교육을 지켜 갈 때,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 속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 주간을 맞아 우리 모든 가톨릭 교육 공동체가 교육의 참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환길 대주교